

축발기금사업 줄고 우유급식 늘고

내년 축산부문 정부 예산안 ... 올해보다 2% 감소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이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학교 우유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또 축산물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01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축산부문 사업예산 규모가 8,696억원으로 올해 8,872억원보다 176억원(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축산발전기금 사업 규모는 5,749억원으로 올해 6,217억원보다 468억원(7.5%)이나 줄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축산부문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학교 우유 무상급식이 올해 215억9,850만원(저소득층 45만4,000명분)에서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 자녀 5만8,000명을 추가해 295억6,800만원(51만2,000명분)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년부터 축발기금운용계획에서 축산공제사업을 포함해 사료구매·간급경영안정 이차보전 및 축산물도축 가공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 2,496억원이 일반회계와 농특회계로 이관·통합됐다. 다만 축발기금 자원 축소의 영향으로 정부에 요구한 출연금은 2,600억원에서 1,500억원이 감액된 1,100억원으로 조정됐다.

내년에 규모가 감소하는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질병에 따른 수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축산물수급 안정사업이 387억원에서 178억원으로 209억원 줄었으며, 원유수급조절자금도 427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27억원 줄었다.

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지원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폐지돼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예산 규모도 139억원에서 40억원으로 99억원 감소했다.

예산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업은 청보리 재배면적을 5만ha에서 8만ha로 늘리고 생산량도 100만에서 160만

으로 확대하는 조사로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819억원에서 1,002억원으로 183억원 늘어난다. 또 한우암소검정과 보 증씨수소·젓소씨수소 사육 등 가족개량사업 지원이 268억원에서 428억원으로 160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축산부문 예산과 기금은 단순보조사업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지원과 투자를 우선했다"며 "또 농특회계나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한 것은 축산부문 예산에 국가재정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제품, 수출 유망품목 집중 육성”

허태웅 농식품부 과장, 유가공심포지엄서 밝혀

정부는 유제품에 대해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허태웅 과장은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유가공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과장은 “국내산 유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해 수출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한국산 유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고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유제품 수출 확대 전략을 중점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과장은 이를 위해 “중국 낙농현황 및 유제품 소비시장, 검역, 관련제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수출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선을 확대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 전상곤 박사가 'FTA체결에 따른 국내 유제품 수출입 변화 전망'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윤재호 사무관이 '우리나라 유

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국제 동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노무라 토시노 부장이 '일본의 유제품 시장 현황 및 수출입 전략'에 대해, 서울우유 오상목 유통사업본부장이 '국내 유업체의 해외 진출 사례 및 수출 현황'에 대해, 노르웨이 Tine BA의 Espen Thonassen씨가 '유럽의 기능성 유제품 연구 개발 동향'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는 불만

정부가 가축 폐사율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 축산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과 지원 조건 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가축의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 부터 낡은 축사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조 5,000억원을 투입, 한우·돼지·닭·오리·젓소 등의 축사(농가) 5,150개소에 보조·융자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으로 모두 995억3,9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사업 대상과 조건 등 지원 체계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축종별로 2억~14억원 한도에서 전체 사업비 가운데 30%는 보조를 해 주고 50%는 저리(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로 융자 지원을 하는 만큼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농가수를 연도별로 미리 책정한 것과 기존 축사 규모를 넘는 증축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다면 올해 지원 대상이 502농가로 정해지는 등 연도별로 지원 농가 수를 미리 정한 나머지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해도 수혜 대상에 선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계획적인 양축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주장이다.

또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업화·규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 사업은 이미 등록된 축사 면적 규모 만큼의 시설에만 지원해 줘 시설 증축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대다수 축산농가는 악취민원에 시달려 양축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악취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사업지금을 늘려 수혜 농가수를 확대하고 시설증축 면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축사 시설 현대화와 함께 규모화를 촉진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동화와 생력화에 필요한 장비,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설 등도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게 기준과 조건을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한·유럽연합(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지금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농협, 사료값 또 내려

농가 경영비 절감위해 평균 7.9%

농협사료가 10월 17일을 기해 배합사료값을 1kg당 32.3원씩, 평균 7.9% 인하했다.

올해 2월, 4월, 5월, 8월에 이어 다섯번째로 단행된 이번 인하조치로 농협사료값은 연초 대비 28% 인하됐다. 그 결과 축산농가에 총 1,513억원의 경영비 환원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종별 세부 인하내역을 보면 비육용이 1kg당 35원(9%) 내린 것을 비롯해, 낙농용 30원(7%), 양돈용 20원(4%), 산란계 35원(7.5%), 육계 13원(2.6%), 기타 사료는 28원(6.2%)이 인하됐다.

국제 옥수수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농협사료가 또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위축되는 축산업계 분위기를 쇄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사료의 이병하 대표이사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료가격을 과감히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료업계에서 3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농협사료의 이번 결정은 일반업체의 사료값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16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사료의 가격 인하 소식을 접한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농식품위 위원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사료값을 경영 부담에도 불구하고 농협사료가 내린 것은 농업인들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유, 기능성 보다 '자연식품' 부각을 IDF코리아 '세계 영양마케팅 동향' 워크숍서 강조

"세계적으로 우유의 영양 마케팅은 생산자 위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고려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IDF코리아는 '세계 영양마케팅 추진동향 및 국내 홍보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IDF 및 산학 관계자 초청 워크숍을 지난 10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IDF본부 요르그 사이퍼트 기술국장은 '세계 영양마케팅 추진동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요르그 기술국장은 "우유를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비롯해 성인 당뇨병 예방 등 수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때로는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르그 국장은 "소비자들은 물론 일부 의료 전문가들조차 유지방, 콜레스테롤 등 우유의 특정 성분 때문에 우유 섭취를 거부하는 것은 서구적 식단에서 기인한 흑백 논리에 가까운 소비자들의 오해일 뿐"이라며 "우유는 단순히 한 가지 성분을 섭취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식품을 먹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르그 국장은 "과거에는 생산자들이 가능한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과학적 분석이나 마케팅을 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요르그 국장은 "우유의 특정 성분 등 영양소를 강조한 마케팅 보다는 우유 자체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우유는 자연 그대로라는 컨셉으로 우유를 통해 영양과 즐거움, 편이성, 가치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 세종대학교 객해수 교수는 '유제품의 영양건강효과 및 대소비자 홍보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곽 교수는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유의 영양성분과 기능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중·장년층과 병원용 등 기능성 유제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쇠고기 시장서 육우쇠고기 점유율 11% 육우사육두수, 2003년보다 23% 감소

최근 육우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아 위축됐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육우고기는 대부분 홀스타인종 비육

우고기로서 제대로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육우사육두수를 보면 2003년 12월 20만3000두에서 올해 6월 15만6000두로 23%에 해당하는 4만7000두가 감소했으나 한우는 같은 기간 91.3%에 해당하는 116만6000두 증가했다.

올해 6월 한우사육두수는 244만3000두로 1998년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개방 된 이후 최대 사육마리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체 한·육우 사육두수에서 육우의 비중은 2003년 13.7%에서 올해 6월 현재 7.7% 감소해 6.0%로 크게 줄어들었다.

육우도축 또한 2004년 16만2000두에서 지난해 11만6000두로 약 4만6000두 감소했으며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쇠고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올해 4월 현재 1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우의 육질과 관련해 최근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9%에 불과한 반면 3등급은 56.8%에 달했다.

한우는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육농가의 육질 개선노력 등으로 육질이 꾸준히 향상돼 지난해 1등급 이상이 55.2%에 달했고 3등급은 2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정해걸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해걸의원은 "최근 육우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젖소 사육비 증가와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한 낙농시장 개발에 대한 우려, 음식적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육우는 국내 낙농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고 중요한 국내 축산 자원이므로 육우산업의 침체는 낙농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낙농가수 7천호 붕괴...원유생산량 줄어

전국의 낙농가수가 7천호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원유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가 지난 21일 발표한 10월 중 낙농산업 주요 지표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9월 중 전국의 낙농가 수는 총 6천975호로 전월 7천8호에 비해 33농가가 감소해 7천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원유 생산량 역시 9월에 17만458톤으로 전월 17만5천669톤에 비해 3%가 감소했다.

특히 9월까지 총 생산량도 158만9천801톤으로 전년 동기간 162만3천430톤에 비해 2.1%가 줄어들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 생산량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학교 개학 등 단체 급식 재개에 따라 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중 시유 생산량은 5천113톤으로 전월 4천733톤에 비해 8%가 증가했으며 시유 소비량 역시 4천120톤으로 전월 3천866톤에 비해 6.6%가 늘어났다.

또 9월말까지 백색시유 누적 생산량은 128만1천181톤으로 전년 동기 128만4천600톤에 비해 0.3%가 감소했지만 소비량은 104만996톤으로 전년 동기간 101만8천84톤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소비량은 증가해 잉여원유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분유 재고량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분유 재고량은 탈지분유가 전월대비 19.9% 감소한 4천688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지분유는 57.1% 감소한 146톤으로 총 4천834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평균 유질은 유지방 3.90%, 평균 세균수 1만8천개/ml, 체세포수 21만3천개/ml로 나타났으며, 체세포수 1등급비율은 전월대비 9.2% 증가한 54.7%로 나타났다. (☎)